

‘크루즈 황금시장’ 선점…인프라에 달렸다

터미널조차 없는 항만, 이대로는…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해마다 증가세
제주항 방문객 10년 만에 664배 증

접안시설만 딜링…비 피해 곳도 없어
크루즈 관광객 맞춤 프로그램도 미흡

중국 최대 연휴였던 1일부터 7일까지의 국경절 연휴,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들에게 요즘 한국 관광의 ‘핫 플레이스’로 꼽히는 제주에는 이 기간 9만여명이 방문했다.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가는 주된 방법은 중국과 제주를 연결하는 135편의 직항 노선이나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국경절 연휴에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중 2만여명은 비행기가 아닌 바닷길을 택했다. 바로 세계관광기구가 ‘21세기 최고 관광상품’으로 꼽은 국제 크루즈선을 이용한 관광객이었다.

●제주 크루즈, 10년 전 753명에서 50만명으로 664배 증가

한국, 중국, 일본을 바다로 연결하는 동북아 노선은 국제크루즈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코스다. 이용객이 해마다 16%씩 급성장해 이탈리아의 코스타 크루즈, 미국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등 해외 크루즈선사들이 대형 선박을 경쟁적으로 취항하고 있다.

동북아 크루즈의 주요 고객은 역시 중국인 관광객이다. 항공보다 비싸지만 안락하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크루즈투어 붐이 일면서 기존 상하이 출발 중심이던 크루즈 관광이 텐진과 산둥성까지 확대됐다. 중국도 크루즈 시장의 급성장에 주목하고 올해 8월 자국 선사인 보하이사의 중화태 산호를 인천항에 취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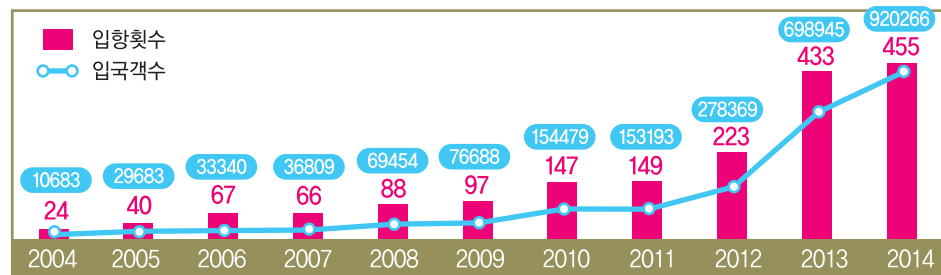
국내해 제주, 부산, 인천 등이 동북아 크루즈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중일관계 악화로 일본 대신 한국을 방문하는 상품이 많아지면서 크루즈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 집계에 따르면, 1일까지 크루즈선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었다(50만2024명). 국제크루즈선이 제주에 처음 입항한 2004년에 753명이던 방문객이 10년 만에 664배나 늘어난 것이다. 제주 외에 부산과 인천도 방문객이 늘었다. 한 국관광공사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이면 크루즈 입항 횟수 455회, 크루즈 관광객은 9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표



제주 크루즈 전용부두에 입항한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사의 13만8000톤 규모 크루즈선 ‘마리나 오브 시즈’. 중국 관광객이 중심이 된 크루즈 투어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전용 크루즈 터미널 건설 등 관련 인프라가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2014년도 연도별 크루즈 외래객 입국현황 (출처: 한국관광공사)



※ 2013년도부터 중복기항제와 선원포함된 확정통계임. 2014년 추정치는 전년도 탑승률 78% 일괄 적용

참조).

●새로운 황금시장 위한 과감한 투자 현실

국제 크루즈선 한 척에는 한번에 많게는 4000여명의 승객이 탄다. 대형 항공기 10대가 동시에 실어 나르는 규모다. 이렇게 많은 방문객이 동시에 도착해 관광과 쇼핑에 돈을 쓰니 지역 관광업계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씬숨이도 남다르다. 업계에서는 크루즈 승객 한 명이 쓰는 금액을 일반 관광객의 두 배로 보고 있다. 이정철 롯데면세점 제주점장은 “씬숨이도 큰데다 다른 사람이 사면 나도 사는 이른바 군중심리도 강해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매출이 불과 몇 십 분만에 켜중 켜다”고 소개했다.

이런 크루즈 방문객을 늘리려면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항만 인프라의 개선이다. 아시아 크루즈 투어의 허브로 1990년대부터 굳건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싱가포르의 크루즈 터미널 근처에 초대형 복합리조트 마리나베이 샌즈가 있다. 중국 상하이도 현재 운영하는 크루즈 터미널 외에 새 터미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을 앞둔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전용 터미널조차 갖춘 곳이 없다. 가장 많은 크루즈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는 부두에 접안시설만 딜링 있어 태풍으로 비바람이라도 불면 하선한 승객들이 비를 피할 공간이 없다. 대형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항만

●항구별 입국객 수 (중복기항제외, 선원포함)

항구	2012년	2013년	2014년(1~8월)	9~12월 추정치
제주	142,776	415,664	486,351	160,508
부산	117,484	164,342	122,592	56,786
인천	2,898	93,504	62,996	20,603
여수	13,548	13,817	590	-
광양	-	9,634	9,318	-
기타항	1,663	1,984	521	-
계	278,369	696,945	682,368	237,898

도 현재 5곳에 불과해 동해안 등 기항지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크루즈 승객들은 통상 기항지에서 짧게는 반나절, 길어야 하루 정도 머문다. 이런 특성에 맞춰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미흡하다.

현재 크루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일본도 어색한 중일관계와는 별도로 요우커 비자 면제와 나가사키 등 주요 항만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시기를 놓치면 새로 커진 황금시장을 다른 나라들이 선점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발 빠른 투자가 절실하다.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강원랜드, 또 속앓이

정부, 10일까지 방만경영 해소 노사협약 지시
이행 못할 경우엔 직원 임금 동결 등 최후통첩

1999년 설립 이후 첫 파업이 발생하는 등 올 여름 노사 갈등을 겪은 강원랜드가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한 가운데 8일 강원랜드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해 “10일까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 해임 건의, 직원 임금 동결 등의 제재를 한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강원랜드는 올 여름 1999년 설립 이후 첫 파업을 벌일 정도로 강하게 반발한 노조와 두 달여의 줄다리기 끝에 18개 항목에 대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이번에 공공기관 경영 평가란 실사 과정에서 여직원 생리휴가 무급 전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16개 항목을 추가로 지적받았다. 추가 지적 사항을 보완해 10일까지는 노조와 새로 단체협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정한 기한이 촉박해 9일 휴일에도 노조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16개 항목 중 4개는 타결을 했고, 나머지 12개 항목도 논의가 많이 진전돼 10일까지는 새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부채 및 복지 실태와 관련한 중간평가 결과를 이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점수가 낮은 일부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건의할 예정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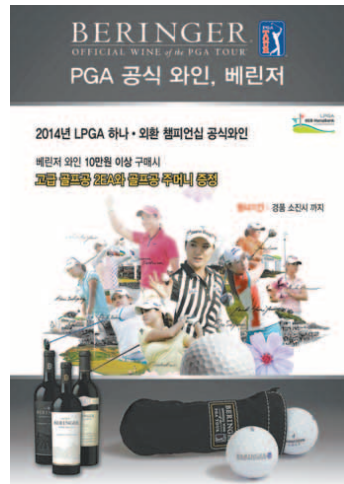
베린저, ‘LPGA 하나·외환’ 공식와인 선정

롯데주류에서 공식 수입하는 미국 와인 베린저(Beringer)가 16~19일까지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2014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의 공식와인으로 2년 연속 선정(사진)됐다. 베린저는 138년의 전통을 보유한 미국 최고의 와이너리로 유명 와인 전문지인 ‘와인 스펙테이터(Wine Spectator)’로부터 화이트와 레드 모두 ‘올해의 와인’으로 선정된 세계 유일의 와인 브랜드다.

특히 이번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는 ‘베린저 프라이빗 리저브 까베네 소비뇽 2002’가 우승와인으로 증명된다. 베린저의 베스트 빈티지 중 하나로 현재 베린저 본사에도 8병밖에 남아있지 않다.

한편 롯데주류는 베린저의 공식와인 선정을 기념해 대회기간 동안 골프장 내 VIP 라운지를 통해 시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요 백화점에서 베린저 와인을 최대 45% 할인판매하고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고급 골프공 2개와 골프공 주머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rf



복지기관에 전달할 밀반찬을 만들고 있는 한화그룹 임직원들(왼쪽 사진)과 인천 한화기념관을 방문한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들.



사진제공 | 한화그룹

한화그룹 임직원들 ‘아름다운 릴레이’

창립 62주년 기념 10월 한 달간 릴레이 봉사활동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창립 62주년을 맞아(9일) 10월 한 달간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친다. 7일 시작해 10월 말까지 전국 22개 계열사 65개 사업장 임직원들이 참여한다. 릴레이 봉사활동은 올해로 여덟 번째 맞는 한화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김승연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는 “한화와 ‘함께’ 그리고 ‘멀리’”라는 콘셉트로 결연을 맺은 전국의 복지시설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초청행사 등을 진행한다. 7일엔 그룹 임직원들이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들과 인천에 위치

한 한화기념관을 함께 견학했고, 8일엔 김연배 부회장(한화생명 대표)과 이윤국 한화63시티 대표 등 임직원들이 복지기관에 전달할 밀반찬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9일엔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10개 아동센터 어린이 150명과 함께 여수 아쿠아플라넷을 견학했다. 김연배 부회장은 “한화그룹과 인연을 맺은 어린이들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다면 지난 60여 년간 우리 사회와 ‘함께 멀리’ 가고자 했던 한화그룹에 가장 의미 있는 창립기념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7일엔 대전·충청지역 10개 사업장 임직원들이 60여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서산야구장을 찾아 한화이글스 코치들로부터 레슨을 받는 등 10월 말까지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크라운제과 고객 여러분께

‘유기농웨하스’에서 미생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해당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미생물에 취약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함에 따라 훨씬 엄격한 기준과 절차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생산공장 자체검사, 품질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장위원의 검사, 그리고 외부의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3중의 안전검사 과정을 거쳐 일반 제품보다 더 철저히 품질관리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내 아이가 먹는 과자’라는 일념으로 안전한 과자를 만들어왔다고 자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규정한 업무절차에 대한 저희들의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9월26일부터 자진하여 회수를 하고 있으며, 회수된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 재검밀검사를 실시하였는바, 다행히 해당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해당 제품의 안전성은 확인하였지만, 고객분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조치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크라운제과 임직원 일동은 더 철저히 식품안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고객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크라운제과 임직원 일동